



중랑구의회 소식

중랑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의정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jnc.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jungnangcouncil

중랑구의회, 2021년 신축년(辛丑年) 첫 임시회 개회

1월 28일부터 8일간

2021년 구정업무계획 보고 및 일반안건 등 처리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9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한다. 이어서 2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중랑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은주 의원 대표발의)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발의)을 포함해 총 10개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중랑구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실 내 비말 방지 칸막이를 설치하고 개인별 마이크 위생 커버를 사용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 속에 이번 회기를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중랑구의회, 보건소 격려 방문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는 보건소 전 직원에게 도시락 전달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지난 12월 21일 중랑구 보건소를 방문해 보건소 소속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온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건소 전 직원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줄 260개의 도시락도 함께 전달되었다. 중랑구의회 역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은승희 의장, 김영숙 부의장, 최은주 의회운영위원장, 박열완, 오화근, 이병우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17명의 의원을 대표해 보건소를 찾았으며 김무영 보건소장으로부터 관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고 받은 후 보건소 네 개 부서에 들러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랑구의회 은승희 의장은 “보건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2020년 중랑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며 “중랑구민을 대표하여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에 불편한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중랑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우리 구의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감사패 받아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감사



〈중랑구의회 은승희 의장이 이달 6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사진 왼쪽부터 은승희 중랑구의회 의장, 심정원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가 지난 1월 6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제244회 정례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데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박열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패를 수여받은 은승희 의장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사분들의 노고가 매우 큰데 비해 이분들을 보호할 제도가 그간 미비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의 권익 향상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구민의 삶에 힘이 되는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랑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마무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17건 등 총 24건 안건 처리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은승희)는 지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44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3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5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익모)를 열어 202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이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857억 원, 특별회계 213억 원 등 총 8,070억 원으로 중랑구 역대 최대 규모이며, 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14억 1581만여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마지막 날인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24건을 처리한 것을 끝으로 2020년도 중랑구의회 회의 운영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은승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공직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과 함께 “공생관계를 잊은 채 혼자만 잘 살려다 공멸하고 마는 ‘공명지조(共命之鳥)’를 교훈 삼아 상생의 가치 아래 오늘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제244회 정례회 의결 의원발의 조례

중랑구의회는 행정 집행에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입법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제244회 정례회(11.30.~12.21.) 때 의결된 중랑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4건을 소개합니다. 조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의회 홈페이지(<http://jnc.go.kr>)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서울특별시 중랑구'로 이동)]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최경보 의원
발의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서상혁, 왕보현, 임익모, 장신자,
조희준, 최은주 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자 : 장신자 의원
발의자 :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임익모, 조성연,
조희준, 치경복, 치은주, 이위